

제①교시

국어

홀수형

수험번호 ()

성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8]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 그는 ()이/가 참 넓다.
- 빨리 시험을 끝내고 () 뻗고 잤으면 좋겠다.
- 승객 6백여 명이 폭설로 열차 안에서 ()이/가 묶였다.

- ① 발 ② 눈 ③ 손 ④ 배

2. 다음 문장에 사용되지 않은 문장 성분은?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서술어

3. 밑줄 친 단어 중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 ① 장미가 참 아름답다.
② 하늘이 매우 푸르다.
③ 저 산에는 나무가 많다.
④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4. 밑줄 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 날도 혹부리 영감은 지개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도 하고 도토리도 주웠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지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산 속에 뻐꾸기 뻐꾹 울고.
다람쥐와 친구 아니 얼마나 좋소.

- ① 덩실덩실 춤을 추며
② 표정은 매우 만족스럽게
③ 걸음을 흥겹게 옮기면서
④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면서

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 ① 지금 즉시 대답해!
② 그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③ 나는 열살난 어린이입니다.
④ 청군 대 백군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6.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친구'라는 말은 'ㅊ - ㄴ - ㄱ - ㅜ'라는 다섯 개의 소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이 중에서 하나의 소리만 바뀌어도 이 낱말의 본래 뜻이 바뀌게 된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라고 한다.

- ① 음운 ② 음절
③ 어절 ④ 문장

7. ㉠~㉡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 물은 음식을 만들 때와, 목욕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등 일상 생활 용수로 쓰인다.
㉡ 일상 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저수지에 가두어 두었던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된다.
㉣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 이용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8.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운동장이 끝나는 곳에 펼쳐진 강물의 색깔은 볼 때마다 다르다. 지금은 녹색 비단을 잘 다려 펼쳐 놓은 것 같다. 바람이 이는지 물빛이 찬란하게 반짝인다. 저렇게 작은 물빛들이 모여서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강이 된다. 그 강물 위로 하얀 학들이 천천히 날아간다.

-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

- ① 학 ② 강물 ③ 바람 ④ 운동장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똑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밖에.

- 정지용, 「호수」 -

(나)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 나희덕, 「배추의 마음」 -

(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 담던 ⑦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 도종환, 「어떤 마을」 -

9.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장면 단위로 구성한다.
- ② 정확한 사실을 제시한다.
- ③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
- ④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10. (가)에서 ‘보고픈 마음이 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어는?

- | | |
|------|-------|
| ① 눈 | ② 얼굴 |
| ③ 호수 | ④ 손바닥 |

11. (나)에서 말하는이가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대상은?

- | | |
|------|------|
| ① 배추 | ② 농약 |
| ③ 가을 | ④ 밭둑 |

12. ⑦과 같이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된 것은?

- | |
|-----------------|
| ① 연분홍 벚꽃 |
| ② 향긋한 풀꽃 냄새 |
| ③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 |
| ④ 쇠아쇠아 하는 바람 소리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올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⑦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걸려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 황순원, 「소나기」 -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 ②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이다.
- ③ 향토적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 ④ 비교적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14. ⑦으로 짐작할 수 있는 소년의 마음은?

- | | |
|-------|-------|
| ① 아쉬움 | ② 지루함 |
| ③ 두려움 | ④ 무서움 |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우 :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민들레꽃이 남아 있어! (㉠ 총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꺾어 듣다.) 이 꽃을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립다.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

형 : 벽 너머 저 쪽에도 민들레꽃이 피어 있겠지…….

아우 : 형님이 보고 싶어!

형 : 동생 얼굴이 보고 싶구나!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비가 그치면서 ㉢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

형 :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아우 : 비가 그치고 산들바람이 부는군.

형 : 저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가만있어 봐. 민들레꽃은 씨를 맺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잖아?

아우 : 햇빛이 비치니까 샛노란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형 :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로 던져 주어야지. 동생이 ㉣ 민들레꽃을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아우 : 형님에게 이 꽃을 드리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인 나를 생각하겠지.

- 이강백, 「들판에서」 -

15. 위와 같은 글의 종류는?

- | | |
|------|------|
| ① 시 | ② 희곡 |
| ③ 수필 | ④ 소설 |

16. 위 글에서 ‘형제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는?

- ① ㉠ ② ㉡ ③ ㉢ ④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은 일제의 온갖 위협과 유혹에도 죽는 날까지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온갖 고초 속에서도 광복과 독립의 그 날, 역사의 새벽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복을 일 년 앞둔 어느 날, ‘십우장’ 차가운 냉돌 위에서 끝내 역사의 큰 별은 떨어지고 말았다.

<중략>

비록 불우한 삶 속에서 선생은 갔지만, 그 불타는 조국애는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빛날 것이다. 또, 선생의 고결한 지절(志節)은 ‘풍란화(風蘭花) 매운 향내’*로서 겨레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향기를 더해 갈 것이다.

- 김재홍, 「만해 한용운」 -

*‘풍란화 매운 향내’: 정인보(鄭寅普)가 한용운을 추모하여 지은 시조의 첫 구절.

17. 위와 같은 글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 | | |
|-------|-------|
| ① 사실적 | ② 교훈적 |
| ③ 음악적 | ④ 서사적 |

18. 위 글에서 ‘한용운’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알맞은 것은?

- | | |
|------------|-------------|
| ① 효심이 깊다. | ② 우애가 두텁다. |
| ③ 학구열이 높다. | ④ 조국애가 강하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어를 정해서 쓰면, 모든 국민이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통합이 용이해진다. 또, 표준어를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화 생활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준어가 아닌 말은 모두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 중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을 ㉠ 사회 방언 또는 계급 방언이라고 한다.

<중략>

사회 방언은 언어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이가 나타난 것인데, 대체로 계층, 세대, 성별, 학력, 직업 등이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사회 방언의 예를 들면, ‘물개’는 군인들이 ‘해군’을 의미하는 말로 쓰며, ‘낚다, 건지다’는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취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 성낙수, 「표준어와 방언」 -

19. 위 글에서 말하는 ‘표준어 사용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 | |
|-------------------|
| ① 국어 순화에 기여한다. |
| ② 국민 통합이 용이해진다. |
| ③ 의사 소통에 장애가 된다. |
| ④ 교육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

20. ㉠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 |
|------|------|
| ① 계층 | ② 성별 |
| ③ 지역 | ④ 학력 |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항목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두세 뮤음으로 나눈다. 양이 적다면 한 번에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이 낫다. 이 점은 얼핏 보기에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나, 일이 복잡하게 되면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한 번의 실수로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이나 문장은 결코 어렵지 않다. (㉠) 이 글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 ‘선택기’를 떠올리면서 위의 글을 다시 읽어 보자. 이번에는 의외로 글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항목’이 ‘빨랫감’을 뜻하고, ‘일’이 ‘선택’을 뜻한다는 것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기’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위의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선택기’에 관한 우리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즉, 아는 지식으로 모호한 표현들을 해석해 가며 읽었기 때문이다.

- 최영환, 「읽기란 무엇인가」 -

21. 위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 ① 다른 독자와 대화하기
- ②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 ③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찾기
- ④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22. ㉠에 들어갈 접속어로 알맞은 것은?

- | | |
|--------|--------|
| ① 따라서 | ② 그러나 |
| ③ 왜냐하면 | ④ 그러므로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화나 민화 속에서 우리는 ㉠ 무서운 호랑이, ㉡ 익살스러운 호랑이, ㉢ 정이 철철 넘치는 호랑이, ㉣ 신이(神異)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설화 속의 호랑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 호랑이는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설화 중에는 사람이나 가축이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다) 우리 민족에게 효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도리였다. 이처럼 인간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있다. 여름철에 홍시를 구하려는 효자를 등에 태워 홍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 호랑이 이야기, 고개를 넘어 성묘다니는 효자를 날마다 태워다 준 호랑이 이야기 등이 있다.

- 최운식, 「설화 속의 호랑이」 -

* 신이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이 이상하고 신비로운.

23. 글 전체에서 (가)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 ① 글쓴이의 당부
- ② 앞의 내용 요약
- ③ 이어질 내용 소개
- ④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24. ㉠~㉢ 중, (나)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25. (다)에 쓰인 설명 방법은?

- | | |
|------|------|
| ① 분석 | ② 예시 |
| ③ 정의 | ④ 과정 |

※ 확인사항

자신의 문제지 문형(홀수형)이 정확한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